

메시지 4

교회의 본성

성경: 고전 1:2, 12:12, 엡 1:19-21, 2:6, 3:16-21, 4:4-6, 16, 고전 6:17

I. 교회는 신성하며, '그리스도께 속하고(Christly)', '부활에 속하고(resurrectionly)', 하늘에 속한다.

A. 교회는 하나님께 속한다 — 고전 1:2, 10:32, 11:16.

1. 한 지방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을 소유한 하나님의 교회여야 한다 — 벨후 1:4.
2. '하나님의 교회'라는 표현은 교회가 하나님께 속할 뿐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본성을 갖고 있어야 함을 가리킨다.

B. 교회는 '그리스도께 속한다' — 고전 12:12, 엡 1:22-23.

1. 각 지방에 있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여야 하며(롬 16:16), 그리스도의 요소 안에 있어야 한다.
 - a. 그리스도는 교회의 본성이시고, 교회는 사실상 그리스도 자신이다 — 골 3:10-11.
 - b. 그리스도께 미치지 못하거나 그리스도가 아닌 것은 무엇이든 교회가 아니다.
2. 교회는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순수한 산출물이다 — 엡 4:15-16.

- a. 이것은 하와로 예표된다. 하와는 완전히, 전적으로, 순수하게 아담으로부터 산출되었다. 하와 안에 있는 모든 것과 하와의 모든 어떠한은 아담에게서 나온 것이었다 — 창 2:22-24, 엡 5:30-32.
- b. 교회는 또한 반드시 한 요소, 곧 그리스도의 요소에 속해야 한다.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의 요소 이외에 다른 요소가 있어서는 안 된다 — 골 3:10-11.

C. 교회는 '부활에 속한다' — 요 11:25, 행 2:24, 계 1:18, 2:8, 10.

1. 교회는 전적으로 부활 안에 있는 한 실체이다. 교회는 천연적이지 않고, 옛 창조물 안에 있지 않다.
2. 교회는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,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의해 창조된 새 창조물이다. 그러므로 교회는 '부활에 속한다' — 갈 6:15, 고후 5:17.
3. 교회는 부활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의해 산출되었고 그분의 부활 생명에 의해 존재한다. 따라서 교회는 죽음을 견딜 수 있는 존재이다.

D. 교회는 하늘에 속한다 — 엡 1:19-21, 2:6.

1. 교회는 승천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 있다.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고,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들의 영역 안에 앉게 되었다 — 엡 2:6.
2. 교회가 하늘에 속한다는 것의 주된 의미는 교회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다는 것이다 — 마 28:18, 단 4:26, 34-35.
 - a. 교회의 본성은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다.
 - b. 하늘의 특별한 본성은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다. 따라서 하늘에 속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본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— 마 6:10, 18:18-19.

II. 우리는 교회의 본성을 보존하는 것에 있어서 깨어 있고 신실해야 한다 — 마 13:31-32.

A. 교회는 하나님과 사람의 만족을 위해 음식을 산출하는 푸성귀와 같아야 한다 — 마 13:31-32상.

- B. 교회의 본성과 기능이 바뀌어서 교회는 새들이 깃들이는 ‘나무’가 되었다 — 마 13:32하, 4, 19.
- C. 교회는 하늘에 속하고 영적인 본성에 따라 땅에 잠시 머무는 푸성귀와 같아야 한다. 그러나 교회는 그 본성이 바뀌어 땅에 있는 나무처럼 깊이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게 되었다 — 마 13:31-32.

III. 교회는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다 — 엡 3:16-21, 4:4-6, 16.

- A.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은 성경에 있는 깊고도 중심적인 진리이다 — 고전 6:17, 요 14:20, 17:21-23.
- B. 우리는 교회의 원칙을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. 교회는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한 것이다 — 엡 4:4-6.
 - 1. 교회는 단지 신성하기만 한 것도 아니고 단지 인간적이기만 한 것도 아니다. 만일 교회가 단지 신성하기만 하거나 인간적이기만 하다면, 교회는 그 본성을 잃을 것이다.
 - 2.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은 교회의 본성을 나타낸다.
- C.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은 그분 자신을 우리와 연합시키시어, 그분께서 우리의 생명과 본성과 내용이 되시고, 우리를 그분의 단체적인 표현이 되게 하시는 것이다 — 요 14:20, 15:4-5, 엡 3:16-21, 4:4-6, 16.
 - 1.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은 신성의 요소와 인성의 요소가 내재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유기적인 실체를 형성하는 것이다. 그러나 이 연결 안에서 요소들은 구별된 채로 있다.
 - 2.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며,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의 성취는 이러한 연합에 달려 있다 — 엡 1:5, 9, 3:11.
- D.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확대, 곧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신 분의 확대이다 — 엡 1:22-23, 4:16.
 - 1. 복음서들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은 머리를 산출했다. 사도행전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의 확대는 그리스도의 몸을 산출했다 — 엡 1:22-23, 4:15-16.
 - 2.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에서 네 인격, 곧 몸과 그 영과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능동적으로 함께 연합되었다.
 - a. 아버지는 아들 안에 체현되시고, 아들은 그 영으로 실재화되시며, 그 영은 믿는 이들과 연합되신다.
 - b. 이러한 연합이 그리스도의 몸의 조성이다.
 - 3.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인성을 가진 그분의 선민과 연합시키시며, 이러한 연합이 그리스도의 몸의 진정한 하나이다 — 엡 4:3, 요 17:21-23.
- E. 교회생활을 위해 우리는 연합된 영, 곧 우리의 거듭난 사람의 영과 연합되신 신성한 영에 대한 이상을 보아야 한다 — 고전 6:17, 롬 8:4.
 - 1. 아버지는 아들 안에 계시고, 아들은 그 영이시며, 그 영은 이제 우리의 영과 연합되어 계신다 — 요 14:9-10, 16-18, 고전 15:45하, 6:17, 롬 8:16.
 - 2. 하나님과 사람의 연결은 두 영, 곧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의 연결이며(고전 2:11-16), 이 두 영의 연결이 성경에서 가장 깊은 비밀이다.
 - 3. 하나님의 경륜의 초점은 연합된 영, 곧 사람의 영과 연합되신 신성한 영이다.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거나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것이 이 초점과 관련된다 — 고전 6:17, 엡 3:9, 5, 1:17, 2:22, 4:23, 5:18, 6:18.